

현직 군수 구속...민주·민평·무소속 후보 7명 혼전

보성군수

보성군수 선거는 현직 군수가 수뢰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뜨거워졌다.

조선의 이용부(66) 군수가 수사와 재판을 반복적으로 받다가 수감되면서 사실상 현직 프리미엄이 사라진 탓에 절대강자 없는 혼전 구도가 펼쳐지고 있다.

무주공산 격인 보성군수 자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무소속 등 후보자 7명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우선 집권여당인 민주당 경선에는 김철우(54) 전 보성군의회 의장, 박남일(66) 전 대전도시공사 사장, 박요주(68) 전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등 3명의 후보자가 참여할 전망이다.

김철우 전 의장은 보성군의회에서 3선 의원을 지내며 쌓은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 풍부한 의정 경험 등을 내세우며 바다 민선을 다지고 있다. 전국 최연소 기초의원이라는 타이틀, 50대 중반의 나이에서 오는 젊음과 참신함은 김 전 의장의 강점이다.

박남일 전 대전도시공사 사장은 군 출신이다. 보성에서 중학교까지 마친 그는 육군제3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육군 32사단 공병대대장, 논산훈련소 시설대장 등을 거쳐 중령으로 예편했다. 대전도시공사 사



민주 김철우·박남일·박요주 경선 참여

하승완·임명규·정종해·김형석 출사표

장을 지냈다. 박 전 사장은 자신의 강점에 대해 '행동하는 실천가'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역발전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경선에 나설 박요주 전 광주지방

국세청 조사1국장은 작은 거인으로 불린다. 고시출신이 아닌 세무직 9급에서 출발해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까지 올랐으며, 포용력이 넓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는 "고향 발전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일념으로 군수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하승완(67) 전 보성군수는 민주평화당 후보로 선거에 나설 전망이다. 하 전 군수는 2차례(민선 2, 3기) 보성군을 이끌었던 경험을 강조하면서 도전장을 내밀었다. 민선 5, 6기 보성군수를 지낸 박남일(66)은 민선 5, 6기 보성군수를 지낸 무소속의 정종해(71) 전 군수 역시 주변의 권유를 받고 출마 여부를 고민 중이다. 그는 "훌륭한 분이 보성을 이끌어 지역이 화합하고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면서도 "출마 여부는 상황을 좀더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고 했다.

김형석(53) 전 통일부 차관도 보성군수 선거 출마 의지를 갖고 민선 흐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최근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임명규(62) 전남도의회 의장은 민주평화당과 무소속 출마를 두고 고민 중이다. 임명규 의장은 별교농협조합장(2선)을 지낸 재선의 전남도의회 의원이다. 별교농협조합장 경험, 도의회 의정활동 경험 등으로 쌓은 농업 현안에 대한 이해와 조직력, 넓은 인맥 등이 강점으로 꼽힌다.

민선 5, 6기 보성군수를 지낸 무소속의 정종해(71) 전 군수 역시 주변의 권유를 받고 출마 여부를 고민 중이다. 그는 "훌륭한 분이 보성을 이끌어 지역이 화합하고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면서도 "출마 여부는 상황을 좀더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고 했다.

민주 경선 승리자가 당선? ... 변수 많아

군정 경험·조직력·인지도 갖춘

야권 후보들도 저마다 승리다짐

보성군수 선거 관전포인트는 더불어민주당 경선 승리자가 곧 본선 승리자가 될 것인 지다. 현직 군수가 수뢰 혐의로 수감 중인 상황이 선거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도 관심이다.

지역 정치권은 대체로 민주당 경선을 통해 당내 후보자가 압축될 경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고공지주에 힘입어 선거 승리를 거머쥌 가능성을 높게 보는 분위기다. 다만, 직전 민선 6기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의 이용부 후보자가 당선된 전례가 있는데 야권 후보자들 모두 풍부한 정치경력과 조직력, 대중 인지도 등을 무기로 내세우며 저마다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현직 군수가 수뢰 혐의로 수감 중인 점도 선거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보성 지역민들은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래 내리 5차례 민주당 소속 후보에게 군정을 맡긴 바 있다. 민선 1기 보성군수에는 민주당 소속 문광웅 후보자가, 2~

3기는 하승완 후보자가 올랐다. 민선 4~5기 역시 민주당의 정종해 후보가 다른 후보들을 누르고 승리했다. 다만, 가장 최근에 치러졌던 민선 6기 선거에서는 무소속 이용부 후보가 과반 이상을 득표, 최초의 무소속 보성군수로 선택됐다.

민주당 간판을 달고 보성군수 자리를 노리는 김철우 전 보성군의회 의장, 박남일 전 대전도시공사 사장, 박요주 전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은 조심스럽게 경선 승리가 곧 본선 승리로 연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내는 분위기다.

반면 2차례 보성군수를 지낸 하승완 전 군수, 임명규 전남도의회 의장 등 야권 후보들은 지역에서 풍부한 군정, 의정활동 경험과 조직력, 대중 인지도 등을 무기로 내세우며 저마다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현직 군수가 수뢰 혐의로 수감 중인 점도 선거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현 군수를 지지하는 세력이 어떤 후보를 밀 것인지도 관심이

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보성=김용백기자 kyb@kwangju.co.kr

“또 만났네” ... 전·현직 군수간 리턴매치 주목

화순군수

이번 선거는 전·현직 군수 간 리턴매치가 관전 포인트다.

재선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 구충곤(59) 현 군수에 맞서 임호경(66) 전 군수가 4년 전 패배를 설욕하겠다고 버리고 있다. 다만 임 전 군수는 리턴매치에 앞서 민병홍(58) 전남도의원, 류복열(65) 전 나주경찰서장과 예선전을 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확정짓기는 이르지만 민주당 화순군수 후보로 구충곤 군수가 단일후보로 굳어가는 모양새다. 그만큼 당내 기반이 탄탄하다는 증거다. 이는 지난 3일 열린 구충곤의 복권서회에서 확인됐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송영길·이개호 국회의원을 비롯해 7000여명이 몰려든 것이다. 예비 후보 등록 전 세몰이에 나선 것으로, 사실상 출마 선언으로 일찌진다.

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구 충곤은 “영산강 마한문화권 개발사업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돼 7000억원의 예산이 확보된 상태다. 앞으로 특별법 제정, 제5차 국토개발종합계획 포함 등을 통해 호남의 대표사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새로운 영산강 르네상스 시대를 여



재선 가도 구충곤 군수에 임호경 설욕 벌려

민병홍 도의원·류복열 전 나주서장도 출마

는 정책개발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구 충곤은 선거 때마다 불거진 고소·고발, 세력간 갈등을 끊고 지역사회를 안정시켰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전남도립대 총장과 전남도의원 등 풍부한 행·의정 경험을 살려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군정을 이끈 점도 긍정적이다. 구 충곤에 맞서는 야당 후보들은 아직까지 어느 당 후보로 나설지 유동적이다. 대체로 지역구 국회의원인 무소속 손금주 의원의 행보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민병홍 전남

도 의원은 민주평화당에 입당할 예정이다. 임호경 전 군수와 류복열 전 서장도 조만간 당적을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민 도의원은 전남도 교육의원 3선과 전남도 교육위원회 부의장, 전남도의회 예결위원장 등을 거치면서 특유의 친화력을 발휘, 화합의 정치인으로 인정받았다. 민 도의원은 “그동안 화순군수 선거는 반목과 갈등으로 점철됐다. 이제 반목과 갈등을 해결하고 화합·소통할 수 있는 인물이 화순군정을 이끌어야 한다”며 자신이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임호경 전 군수는 조만간 탈당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임 전 군수는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점을 자신의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는 “화순의 현안문제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어 그 해결방법도 가장 잘 알고 있다”며 “화순 구시가지 재개발, 만연산·화순천 공원과 화 사업 등을 통해 화순인구를 1만명 늘려 화순시를 건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임 전 군수는 풍부한 선거 경험과 풀뿌리 조직이 강점으로 꼽힌다. 다만 ‘부부군수’라는 부정적 이미지와 과거 선거의 진흙탕 싸움 당사자라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화순 동면 출생인 류복열 전 나주경찰서장은 4년 전 구충곤 군수와 민주당 경선에서 맞붙었다가 고배를 들었다. 류 전 서장은 “역대 화순군수 상당수가 사법처리됐다”며 “지역사회의 정화가 필요하다. 화순이 깨끗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일포럼 전남 공동대표, 바른미래당 전남도당 법률고문을 맡고 있다. 조만간 손금주 의원과 행보를 함께 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욱기자 jwpark@

화순=조성수기자 css@kwangju.co.kr ※사진은 현직·정당·무소속·가나다順

이번엔 깨끗한 선거·지역 화합 이룰까

인구 절반 화순읍 표심 좌우

지역구 국회의원 행보 주목

화순군민들의 여망은 ‘깨끗한 선거’다. 군수선거 때마다 ‘잡음’으로 몸살을 앓았기 때문이다.

화순군은 지난 2002년부터 출몰 ‘부부’와 ‘형제’가 군수 자리를 놓고 ‘가족 운’ 성격의 지니고 있다. 또 화순군 전체 인구의 절반이상이 화순읍에 몰려 살고 있다. 읍내의 표심이 화순 전체의 흐름을 좌우하는 배경이다.

지역구 국회의원인 손금주 의원의 정치 행보도 주목된다. 국민의당 소속이었던 손 의원은 바른미래당을 탈당했다. 지역의 여론을 들은 뒤 조만간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손 의원이 민평당을 선택할 경우, 옛 국민의당 소속 군수 후보 3명도 동행할 것으로 보여 민평당 내 화순군수 경선은 불가피해 보인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화순=조성수기자 css@

이제는 구태에서 벗어난 깨끗한 선거, 지역의 화합을 도모하는 선거를 지역민들은 바라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지역민들의 바람이 어떻게 실현될 지 관심이

다. 화순의 특징은 외지인이 많다는 점이다. 광주와 인접한 지형 탓에 광덕지구를 중심으로 화순읍은 ‘광주의 베드타운’ 성격을 지니고 있다. 또 화순군 전체 인구의 절반이상이 화순읍에 몰려 살고 있다. 읍내의 표심이 화순 전체의 흐름을 좌우하는 배경이다.

지역구 국회의원인 손금주 의원의 정치 행보도 주목된다. 국민의당 소속이었던 손 의원은 바른미래당을 탈당했다. 지역의 여론을 들은 뒤 조만간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손 의원이 민평당을 선택할 경우, 옛 국민의당 소속 군수 후보 3명도 동행할 것으로 보여 민평당 내 화순군수 경선은 불가피해 보인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화순=조성수기자 css@

호남지역 대표주자 YHB집진기 산업현장/요식업분야 환경을 확보드립니다

Y31Y AS24 YHB 31년의 역사와 기술이 요식업소, 산업현장 미세먼지/오일미스트/연기를 완벽히 제거합니다

미스트 크리너



하나의 바디, 네가지 기능
미스트크리너를 새롭게 개발하다

머시닝센터, CNC 선반, 밀링가공
방전가공 외 미스트 발생 공작 기계

요식업소용 전기집진기



직화구이 연기, 미스트, 미세먼지 **민원해결사**

직화구이점 미세먼지 배출주의보 발령
대기오염 규제 대응 해결책

6-사이클론콜렉터



더스트크리너의 새로운 창의, 새로운 발명
사이클론을 한 몸에 품다

그라인더작업, 금속절단가공, 드릴작업, 아크릴가공
절삭작업, 파쇄, 석재가공 등 분진 발생하는 작업



(주) YHB ECO / 주식회사 YHB

www.yhbeco.com / www.yhb.co.kr
E-mail : eco6400@hanmail.net

본사 및 영업본부 :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워 12차 501호 Tel. 02-2029-6400 Fax. 02-2029-6404
광주 공장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5번로 45(장덕동) Tel.062-953-2995
익산 공장 : 전북 익산시 석암로1길 4(용제동) Tel.063-835-4771